



제목	오스만 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사계절
발행일	2008. 5. 30.
저자	도널드 쿼터트 이은정 옮김
출판도시	파주
페이지수	342
ISBN 또는 ISSN	978-8958282969

내용 요약

『오스만 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는 오스만 제국의 기원에서 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오스만에 관한 개설서이다. 거대한 제국에서 서구 열강과의 갈등으로 세계대전을 맞이하는 상황을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작은 국가에서 거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자는 적들의 문체라기보다 오스만 자체가 가진 저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스만 국가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발칸, 아랍, 아나톨리아의 계승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면서도 좋은 나쁜든 헝가리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옛 제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그 유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2장 오스만 제국의 기원에서 1683년까지, 3장 1683년에서 1789년까지의 오스만 제국, 4장 19세기는 연대기적인 서술방식에 따른다. 저자가 핵심적으로 서술한 것은 5장 오스만인들과 그 주변 세계, 6장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법, 7장 오스만의 경제: 인구, 교통, 무역, 농업, 제조업, 8장 오스만 사회와 민간 문화, 9장 집단 간의 협동과 갈등, 10장 오스만 제국의 유산 등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오스만 내부의 상황들이었다.

이 책은 정치사적,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오스만 제국의 내부 조직과 사람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현대 터키와 중동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만 20세기에 오스만 제국과 서구가 겪은 외교적 분쟁과 전쟁사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설명되어 있었다면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익하였을 것이다.